

2024년 상반기 춘천지역 인문학포럼

18세기 춘천인 김낙수의 관원 활동과 일상 생활

염정섭(한림대 인문학부 사학전공)

목차

1. 머리말
2. 김낙수의 관원 활동
3. 김낙수의 일상 생활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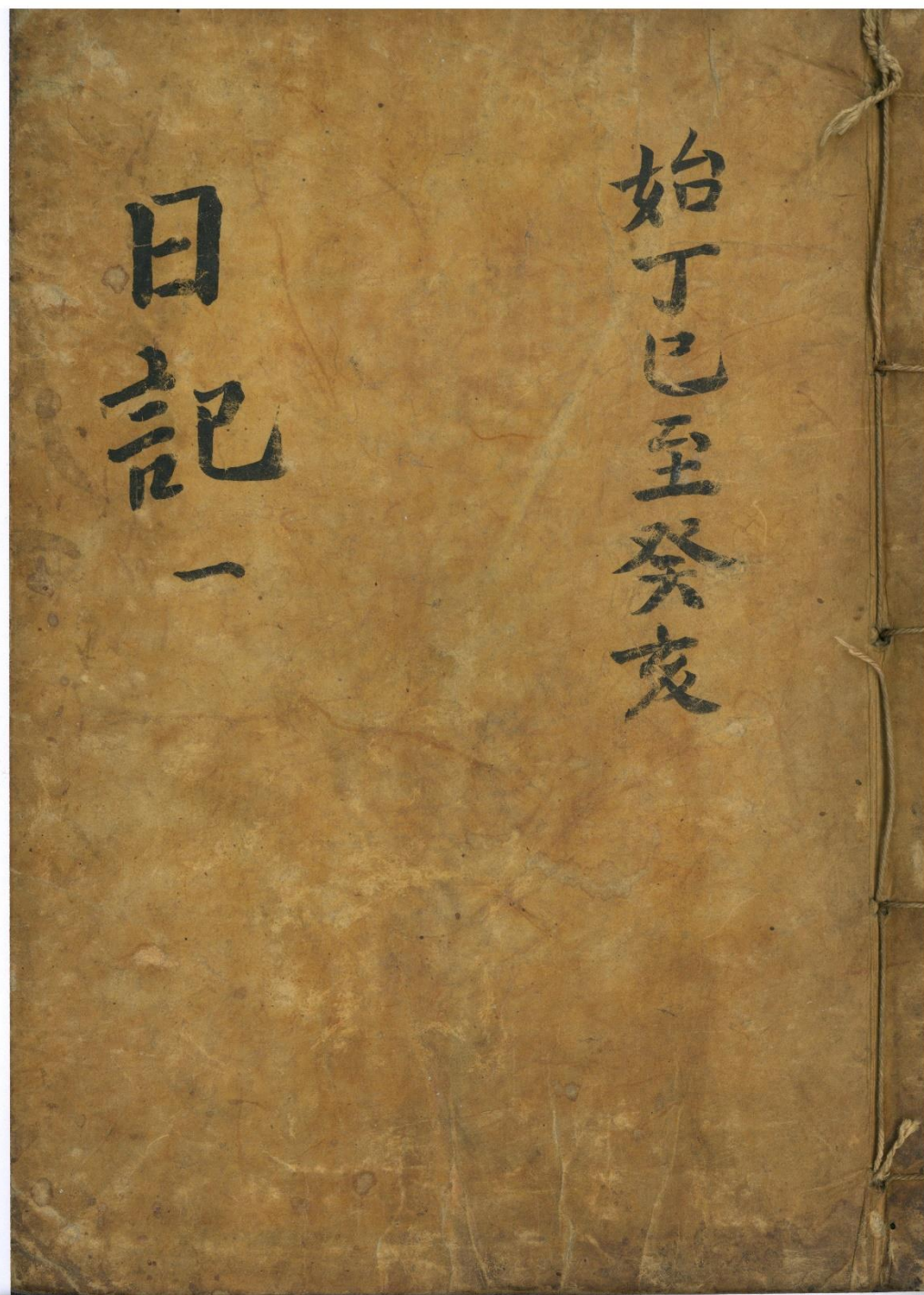
1. 머리말

• 선산김씨 가문 일기자료: 총 6종 50책

구분	권수	작성시기	작성기간
김낙수일기	11책	17세인 1737년부터 72세인 1792년까지	55년
김의집일기	5책	1757년부터 1781년까지	25년
김익환일기	10책	16~17세(1774년~1775년)부터 67세가 되던 1792년까지	55년
김교항일기	10책	49세 되던 1826년부터 84세 되던 1861년까지	35년
김준종일기	6책	49세가 되는 1862년부터 1880년까지	19년
김창림일기	3책	29세가 되는 1925년부터 41세가 되는 1937년까지	13년

김낙수(金樂洙)
1721년(경종 1) -
1792년(정조 16)

(日記一 始丁巳
至癸亥)



김낙수일기 11책 17세(1737년)- 72세(1792년)



日記序

吾家日記肇於 曾王考叅判
公丁未之歲止於壬子之二月有
身有所事則書之卷秩不
先君子自十二歲庚寅記日
之信以書事之可攷止于今年
為嗚呼 患候粵自前冬彌留逮
至有流涕 於委床褥猶常 親自
記事而亦一以後則便是逐日待喪至
二十一日竟遭崩天之痛及去月
竊自掩之以為不肖名在十六七歲
繼而為日記而素性慵懶未免中

일기서
-김교항

선산김씨
가문일기
의 성격

일기서(日記序) 1

- 日記序 吾家日記, 肇於曾王考參判公丁巳之歲, 止於壬子之二月焉. 王考日記, 卽有事則書之, 卷秩不多焉,
- 일기 서문 우리 집안의 일기(日記)는 증왕고(曾王考: 曾祖父, 김낙수) 참판공(參判公)의 정사(丁巳, 1737)년부터 시작하는데, <증왕고의 일기는> 임자(壬子, 1792)년 2월 임진(壬辰, 17일)에 멈추었다. 왕고(王考, 祖考, 할아버지, 김의집)의 일기는 일이 있을 때에만 작성하여 권질(卷秩)이 많지 않다.

일기서(日記序) 2

- 先君子, 自十二歲庚寅, 記日之陰晴, 書事之可攷, 止于今年六月之初■焉. 嗚呼, 患候, 奧自前冬彌留, 逮至二月沈重, 雖委床褥, 猶常親自記事
- 선군자(先君子, 先考, 선친, 김익환)는 12세부터인 경인(庚寅, 1770)년부터 비롯하는데 그날의 음청(陰晴, 흐림과 맑음)을 기록하고, 일의 살필 만한 것을 작성하여, 금년(今年, 병술년, 1826) 6월 초순까지 기록하고 멈추셨다. 오호라! 환후(患候)가 지난 겨울부터 더욱 심해져서 2월에 이르러 깊고 무거워졌다. 비록 상(床)과 침구에 의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항상 직접 일을 기록하였다.

일기서(日記序) 3

- 而初一以後, 則便是逐日待變, 至於二十一日, 竟遭崩天之痛, 乃克八月, 窃自掩泣以爲, 不肖亦在十六七歲, 繼而爲日記, 而素性慵懶, 未免中輟焉.
- 그렇지만 초₁일 이후에 <자식들은> 곧 날마다 큰 변고를 대비하였고, 21일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붕천(崩天, 부모의 사망)을 당하였고 8월에 장례를 마쳤다. 삼가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기를 불초(不肖)가 또한 16세, 17세이니 계승하여 일기를 작성해야 하겠다고 여겼다. 그런데 본래 성품이 게을러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모면하지 못하였다.

일기서(日記序) 4

- 嗚呼, 記日記事, 既爲傳家之一節, 甚(其?)在紹先志而遺後攷, 亦不能無少補, 故披閱舍季之曆記, 追錄數月, 而以六月初一爲始焉. 時丙戌八月 日 泣書
- 오호라, 일기를 작성하는 일은 이미 전가(傳家) 즉 대대로 집에 전하여 내려오는 하나의 규칙(節, 제도)이다. 그 선조들의 뜻을 밝히고 후손들이 살필 바를 남기는 데에 있어서 또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사계(舍季)의 역서(曆書) 기록을 훑어보면서 살피고 수 개월 분량을 추가로 기록하면서 6월 초1일을 시작으로 삼았다. 지금 병술년(1826) 8월 일에 울면서 쓴다.

구상덕(具尙德) 승총명록(勝聰明錄)



승총명록(勝聰明錄) 일기의 덕목

- 1725년부터 1761년까지 37년간 경상도 고성(固城)에 거주하던 구상덕(具尙德, 1706 ~ 1761)이 집필한 일기
- 이정규(李庭奎)는 일기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일을 서술하고<敍事>, 사실을 기록하고<記實>, 경계를 권면하는<勸戒>” 이와 같은 세가지 요건을 지적

저상일월(渚上日月) 경북 예천에서 박한광이 1834년 작성 시작, 1950년까지 함양박씨 6대에 걸쳐 작성한 일기 자료



저상일월(渚上日月) 나암(羅巖) 박주대(朴周大)

- 1895년(고종 32) 일기 서문, 일기에 기록해야 할 사목(事目) 일곱 가지
- ① 천기(天氣)의 음청(陰晴), 즉 날씨, ② 세시(歲時)의 풍흉(豐凶), 즉 작황, ③ 자가(自家)의 출입, 즉 손님의 출입, ④ 농사의 경작과 수확, ⑤ 계절의 길흉과 이변, ⑥ 인리(隣里)와 향토의 사건, ⑦ 조정(朝廷)·시중(市中) 및 포구·항구에서 일어난 사건 등

김낙수 일기 검토 내용

- 김낙수일기,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 그의 관원활동과 일상생활의 주요 사건, 양상을 살펴보고 소개하는 것이 본 발표문의 목표
- 김낙수가 일기를 기록하여 자신의 관원, 사족으로서의 활동을 미루어 짐작하고 논증할 역사적 사료를 충분히 남겨놓았다
- 승정원과 사간원·사헌부 등 언관이라는 중요한 근시(近侍) 기구에서 활동

2. 김낙수의 관원활동

- 1721년(경종 1)에 출생
- 자는 백천(伯天)이고, 호는 퇴암(退庵)
- 우정(憂亭) 김경직의 5세손, 부친은 김석좌(金錫佐)이며, 모친은 증지평(贈持平) 이시원(李蓄遠)의 딸
- 부인 전의이씨(전의이씨)는 부총관 이징서(李徵瑞)의 딸

→ 관원 활동은 과거 급제 이후 시작

김낙수 관원 활동
: 1756년(영조 32)
문과(文科) 정시(庭
試) 병과 4인 급제

五日庚申晴心元入朱

六日辛酉晴

上候平復慶科庭試之親臨春塘臺即日致榜用八曉入場中
親策三皇元會已時呈券初昏柝榜得參茅四召入御前天詔

諄之初問族姓仍教善事君父又下為人精明之教入夜宣暉致榜由通化
門出歷拜峴與大史昆季到宿即夜告廟愴喜交切○季和自塲中聞
內訃音出去可慘

1756년 윤9월 26일 일기

- 상후(上候) 평복(平復, 건강 회복) 경과(慶科) 정시(庭試)에 주상이 춘당대에 친림하고 즉일 방방하면서 8인을 뽑았다. 새벽에 장중(場中)에 들어갔는데, 삼황(三皇) 원회(元會)를 친책(親策)으로 내렸다. 사시(巳時, 9-11시)에 답안지를 냈는데, 초혼(初昏)에 석방(析榜)하였는데, 병과 제4인으로 급제하였다. 어전(御前)으로 불러들어가 임금의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 족성(族姓)을 묻고 이어서 군부(君父)를 잘 섬길 것으로 하교하고, 또한 사람됨을 정명(精明)하게 하라는 하교를 내렸다. 밤이 되어 선온(宣醞)이 있었고, 방방(放榜)하여 통화문(通化門)을 통하여 나왔다.

승정원 재직

- 1756년 윤9월 28일 사변가주서 제수
- 1757년 5월 6일 가주서에 제수
- 승정원: 왕명(王命) 출납(出納) 담당 관서.
정3품 당상관 승지(承旨) 6명, 정7품 이하의 주서(注書) 3명 <주서, 가주서, 사변가주서>
- 승지: 왕명 출납만이 아니라 임금과 관료기구를 연결하는 정무적인 업무 전반을 담당
- 주서: 국왕이 친림하는 자리에 입시 사관(史官)과 함께 기록을 담당

1757년 5월 7일 일기

주상이 문기를 "주서(注書)는 누구인가"라고 하니, 도령(都令, 도승지) 이지억(李之億)이 "아무개이다"라고 말하였다. 주상이 이어서 천신(賤臣)에게 3,4차 전령(傳令)할 것을 명한 다음, 주상이 "주서는 누구의 일가(一家)인가"라고 하니, 지신(知申)이 "고(故) 참판 아무개의 지친(至親)이다"라고 하였다.

七日丁酉晴 曉仕進上注洪翰昨夜入侍時以仰瞻 天顏特遙故余陞為上注
誰也都令李之億曰某也 上仍命賤臣三四次傳命後 上曰注書誰一帝也知
申曰故參判某之至親也 上曰彼注書非但為人之詳明數次出入果善為之甚
精山陵都監堂洪啓禧曰果精矣傳命出入亦善為之也 上謂右相申晚
曰知見故參判某乎右相曰臣未及見之也知申曰臣則見時見之而非曰遠
之人也 上曰然矣 光王朝癸巳年間為知申也 上曰注書姓鄉何處洪啓禧曰
善山人也 麗末忠臣陷江寄衣人某之後孫也 上曰然乎未退世仍申退
八日戊戌晴 曉仕進以入侍守方矣入侍罷後暮還

주상의 김낙수 평판

- 주상이 "저 주서는 비단 위인됨이 상명(詳明)할 뿐 아니라 수차례 출입하는 데 과연 매우 일하는 것이 정밀하다"라고 하였다. 산릉도감 당상 홍계희(洪啓禧)가 "과연 정밀합니다. 전령(傳令)을 출입하는 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홍계희가 "김낙수가 선산인이고, 여말 충신 임강기의(臨江寄衣)한 아무개의 후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려말 충신으로 '임강기의(臨江寄衣)한 아무개'는 바로 김주(金澍)

1757년 5월 9일 일기

7월에 인산(因山)할 때 대가(大駕) 출궁(出宮)을 동협문으로 마련하도록 전교하였는데, 병판 이후(李후)와 우상(右相)이 계속해서 진달(陳達)하고 있다. 주상이 명하기를 입시한 주서가 시원임(時原任)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한 다음 입시하여 아뢰라는 하교를 내렸다. 이에 유시(酉時, 오후 5-7시)에 퇴출하여 좌상 김상로(金尙魯), 영부사 김재로(金在魯), 판부사李宗성(李宗城), 유척기(俞拓基), 영돈녕 조재호(趙載浩), 영의정 이천보(李天輔)의 집으로 가서 수의(收議)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더니 거의 삼경(三更)이었다.

九日己亥晴 本日又是入診故午時入侍以七時因山時大駕出宮仍傳教東夾門磨鍊故兵判李瑄右相綾陳達上俞入侍注書問政於時原任大臣後入侍以奏

十日庚子晴 暖仕進午時都監堂上漏次入侍時持大臣職政隨入宮時少退閣外矣下門翰後有提護使留門入侍之教故戌時入侍罷兩後退出休于侍滯方

十一日辛丑晴 仕進以入侍守左笑入侍罷後申退

十二日壬寅晴 仕進申退

시원임 대신(大臣) 수의(收議) 수행

- 1757년 5월 10일 일기

- “새벽에 사진(仕進)하였다가 오시(午時)에 도감(都監) 당상(堂上) 편차인(編次人)이 입시할 때 대신의 헌의(獻議)를 갖고 들어갔다”

→ 김낙수 일기의 주서 관련 기록에서 승정원 관원 직무에 대한 상세한 사정을 확인, 복원

언관(言官) 활동

- 1759년 5월 28일 김낙수는 경상도 김천찰방에 임명: 김천까지의 여정, 찰방 직무 수행 기록
- 1762년 성균관 전적(典籍) 정6품 자리에 임명,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고, 8월 10일 사헌부 지평에 제수.
- 제부(弟婦) 장례, 부모 천장(遷葬) 등으로 인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함

1762년 11월 2일 정언(正言) 사직소

- 위로는 궤실(闕失)을 널리 구하고, 아래로는 관료들의 잘못을 규핵(糾劾)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성자(聖慈)를 베풀어 삭직해줄 것을 요청
- 목하의 급무를 성궁(聖躬)을 보색(保齎)하고, 동궁(東宮, 世孫)을 보양(輔養)하는 일이라고 지목
- 정성(情性)을 휴양하는 도리에 유심하여 오래도록 이어지는 방도를 널리 펼쳐서 신민(臣民)의 바람에 부응할 것을 요청
- 끝으로 동궁에서 훈도(薰陶)와 교양(教養)을 맡을 관료를 엄선해야 한다는 내용

정조 즉위년 언관 활동

-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 며칠 뒤인 10일 정조가 즉위
- 1775년 봄부터 영조 노환, 정조가 대리청정
- 정조가 동궁에서 후왕(後王)으로 순조롭게 즉위할 수 있는지 여러 어려움에 봉착
- 1776년 2월 김낙수는 존현각에서 왕세손을 대신, 비국 당상 등과 더불어 인접(引接) 입대(入對)할 때 의미있는 所懷를 올림

1776년 2월 11일 일기

동궁이 차대하여 입참하였다. 대사헌 조재준에게 전달(傳達, 達은 세자의 명령)되었는데, 長僚(대사헌)에게 이미 명령이 내렸으니 下僚가 재계(再啓)할 수 없어 그러므로 소회(所懷)를 진달(陳達)하였다.

一日癸丑晴

東宮次對入參大司憲趙載俊傳達長僚既達
時下僚則不得再啓故以所懷陳達第一件即
浮置謹競貪墨之成風請用恬雅謹飭庶慎之

1776년 2월 11일 執義 所懷

- 일기: 소회 내용 대폭 축약
- 지금 세도(世道)가 무너지고 분열되었으며, 인심(人心)이 함몰하여 물에 빠져버렸는데, 이는 3가지 폐단 때문이라고 진단
- 부효(浮囂, 시끄럽게 떠들)
- 조경(躁競, 벼슬자리 다툼)
- 탐묵(貪墨, 뇌물을 탐냄)

1776년 2월 11일 執義 所懷 2

- 군상(君上)이 한번 전이(轉移)하는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
- 간정(簡靜)을 숭장(崇獎)하면 부효하는 자들이 저절로 없어질 것
- 괄아(恬雅)한 사람을 등용하면 조경(躁競)하는 자들이 성취할 수 없을 것
- 염신(廉慎)한 사람을 간발(簡拔)하면 탐묵하는 자들이 경계를 알게 될 것

1776년 9월 20일 司諫 上疏

- 굉뢰(轟雷) 즉 천둥 우뢰의 천변(天變) 발생
- 군심(君心)은 만화(萬化)의 근원이다. 한 생각이 올바르게 경성(景星)과 경운(慶雲)이 생기고, 한 생각이 어긋나면 질풍(疾風)과 뇌우(雷雨)가 나타난다고 설명
- 수장(收藏)의 시절에 굉뢰((轟雷)가 생긴 것은 하늘이 경계하는 것이므로 응천(應天)하는 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

1776년 9월 20일 司諫 上疏 2

- 난역(亂逆)을 꾀한 무리의 징치가 결론
- 정처(鄭妻) 즉 정치달(鄭致達)의 처 화완옹주(和緩翁主), 김구주(金龜柱): 궁천(窮天, 하늘을 다하다) 극지(極地, 땅을 지극히 하다)에 해당하는 죄악으로 가득찬 자 가운데 으뜸이라고 지목
- 흥국영이 벌인 천가지 요사스러움과 만가지 악행이 기천(欺天) 부국(負國)의 죄

3. 김낙수의 일상 생활

- 김낙수일기 11책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
- 구체적인 내용을 역사적으로 전후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
→ 상세한 내용은 남김 없이 검토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김
- 18세기 중후반 김낙수가 견문한 일상생활의 여러 모습을 정리하면서, 김낙수가 견문(見聞)한 내용 가운데 일기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분에 주목하였음.

1755년 마지막 일기 기록

혹한(酷寒), 그리고
시치(市直, 물가),
금주(禁酒) 등에 관
련된 내용을 기록

淳遍道臘月之內東南門外死者朝報祈
出至於百十餘名之多 上特命瘞而祭
之其餘流丐之在都中者自惠賑而聽聚
而賑之○今年季秋末 上特下禁酒之
教罷酒房十月初六日告太廟後因用醴
酒都下以釀酒未及盡實限以臘月晦日
故士夫家自正月初吉祀事亦皆用醴酒
耳

1755년의 참혹한 흉년

- 1755년 마지막 일기
- 중하(仲夏)부터 처서(處暑)까지 계속 음냉(陰冷)하여 증열(蒸熱)한 시일이 없었고, 겨울에 들어선 이후 한위(寒威)가 엄혹(嚴酷)하여 10월말부터 납월말까지 가끔 약간 풀린 날이 있을 뿐이나 일양(一樣)으로 극한(極寒)하여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고, 노소(老少)들이 서로서로 근래에 처음 보는 일이라고 전하였다고 기록
- 땔나무가 지극히 귀해져서 1태(駄)의 가격이 1냥 6,7전이었고, 연사(年事, 곡물 작황)가 팔도 모두 흉년인데 관동과 관북은 더욱 참혹한 흉년

1755년 영조의 금주 하교

- 1755년 계추말에 영조는 금주(禁酒) 하교(下敎)를 내려 주방(酒房)을 혁파하고 10월 초6일 태묘에 고한 뒤에 예주(醴酒)를 사용
- 도하(都下)의 양주(釀酒)를 아직 팔지 못한 것을 납월 회일(晦日)까지 시한을 결정
- 사부(士夫) 집에서는 정월초의 고사(告祀) 하는 일부터 모두 예주(醴酒)를 사용하게 되었음

영조실록 영조 31년 9월 8일 기사

- 세초(歲初)부터는 위에서는 왕공(王公)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연례(宴禮)에는 예주만 쓰고 홍로(紅露)·백로(白露)와 기타 술이라 이름한 것도 모두 엄히 금하고 범한 자는 중히 다스릴 것
- 내주방(內酒房)과 내자시(內資寺)·종묘(宗廟)에 봉진(封進)하는 것은 예주로 진헌하고, 대전(大殿) 이하는 날짜나 명일(名日)을 물론하고 고묘(告廟)한 후부터는 일체 아울러서 봉진하지 말라.

영조실록 영조 31년 9월 8일 기사

- 호군(犒軍)과 농민(農民)은 다름이 있어 공자(孔子)가 향인(鄉人)의 사제(蜡祭)에 대해〈《예기(禮記)》에서〉 말하기를, ‘한 번 당기고 한 번 늦추는 것이 문무의 도이다. [一張一弛 文武之道]’라고 하였다.
- 군문(軍門)의 호궤(饋饋)에는 단지 탁주(濁酒)만을 쓰고, 농민들의 맥주(麥酒, 보리술)와 탁주(濁酒) 역시 금하지 말아야 한다.
- 이 윤음(綸音)을 중외(中外)에 반포하라.

전염병 기록

- 1741년 5월 28일 이후 김낙수 일기
- 평안도, 충청도 등 지역에서 염병(染病)이 크게 번져서 많은 병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을 기록
- 기록의 출처는 '조보(朝報)'

조보(朝報)의 제작과 발송

- 승정원(承政院)에서 국가통치상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취사선택하여 그 자료들을 산하기관인 조보소에 내려보내면 조보소에서 이들을 모아 조보를 제작
- 각 관청이나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서리[奇別書吏]들이 조보소에 와서 조보를 서사(書寫)하여 각자의 기관으로 발송

조보의 내용

- ① 국왕의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전교(傳敎)
- ② 당면정책 및 중요 문제들에 대한 유생과 관료들의 건의인 소장(疏狀)
- 국왕의 비답(批答 : 상소 등에 대한 임금의 하답)
- ④ 국왕이 관민들에게 내린 회유문인 윤음(綸音)
- ⑤ 조정에 의한 관리의 인사(人事)
- ⑥ 자연계 및 사회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들인 천변(天變) 지이(地異)
- ⑦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서로부터 국왕에게 올리는 각종 보고서와 복명서 등

한림자천제 → 한림권점제의 모습

- 전임사관은 예문관의 하급 관리인 봉교(奉敎, 정7품) 2명, 대교(待敎, 정8품) 2명, 검열(檢閱, 정9품)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을 한림(翰林) 8원, 시정기(時政記)·사초(史草)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직책
- 전기: 한림자천제(翰林自薦制): 신임사관인 검열(정9품)을 선발할 때, 선임 검열이 다른 한림들의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 실제적인 신규임용을 마무리하는 방식

영조 재위 시기 한림권점제 시행

- 탕평을 앞세운 영조는 한림천거제 자체가 당색(黨色)에 좌지우지되고, 또한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
- 1741년 한림회천법(翰林回薦法) 혁파
- 「한천이정절목(翰薦釐正節目)」 결정함.
→ 한림권점(翰林圈點, 翰林本館圈點) → 도당권점(都堂圈點, 翰林館閣會點) → 한림소시(翰林召試)의 순서 대로 한림을 뽑아 임용

1759년 4월 19일 일기

- 4월 18일 한권(翰卷) 내
용을 기록함

九日己巳陰午後下雨正

昨日翰圈只以新榜為之矣自上下嚴教罷職
當圈翰林更令春秋館堂上會圈監春秋館事

金高曾申晚知春秋洪象漢因百祥同春秋金相福只遂采當之以五點
本圈鄭復玉權師彥則初圈三點故自上下用人宜曠堤防宜嚴翰圈中
鄭復玉之一點權師彥之一點其涉無據其在嚴堤防之道不可罷職而上當
該翰林施以罷職不叙之律仍此而大臣所奏是矣師彥堂后擬望人一体

罷職之教罷職現若鄭復玉圈一點人奉教鄭昌慎權師彥圈一點人檢
閱柳叙五師彥堂后擬望人前注書李正吾李晉圭前擬注書韓必壽注
書李弘承○新及茅俞彥倫朱訪

1759년 4월 19일 일기 1

- 작일(昨日) 한권(翰圈)은 다만 신방(新榜, 문과 새 급제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상이 엄교(嚴敎)를 내려, 한권을 담당한 한림(翰林)을 파직하고 춘추관 당상 회권을 다시 할 것을 명함.
- 감춘추관사 김상로(金尙魯), 신만(申晩), 지춘추 홍상한(洪象漢), 민백상(閔百祥), 동춘추 김상복(金相福), 오수채(吳遂采)가 담당하여 5점으로 참권(參圈)하게 하였음
- 정리옥(鄭履玉)과 권사언(權師彦)은 초권(初圈)에 3점이었다.

1759년 4월 19일 일기 2

- 그런 까닭에 주상이 용인(用人)은 마땅히 밝게 해야 하고, 제방(堤防)은 마땅히 엄숙해야 하는데, 한권(翰圈)에서 정리옥에게 1점을 주고, 권사언에게 1점을 준 것은 그러한 결정에 근거가 없어, 제방을 엄숙하게 하는 도(道)에서 파직으로만 그칠 수 없다
- 해당 한림을 파직하고 불서(不敍)하는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1759년 4월 19일 일기 3

- 이에 따라 대신이 상주한 바가 합당하니, 권사언을 당후(堂后, 승정원)에 의망(擬望)한 사람도 일체 파직하라는 명이 내림
- 파직을 현고(現告, 드러내어 알림)하기를 정이옥에게 1점을 매긴 봉교 정창순(鄭昌順), 권사언에게 1점을 매긴 검열 유서오(柳弑五), 권사언을 당후에 의망한 전(前) 주서 이광오(李匡吾), 이보규(李普圭), 전 가주서 한필수(韓必壽), 주서 이지승(李祉承)이었다.

1759년 4월 翰圈의 영향

- 영조에게 탕평 실시에 커다란 명분을 제공
- 4월 19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영조는 명정전 월대의 석강(夕講)에서 "<한권>의 초권을 만약 제대로 하였으면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그 남북(南北)을 선택하는데 하필이면 오이를 쪼개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조선(朝鮮)은 신하의 조선이 아니라 곧 군(君, 영조)의 조선인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대신들 또한 잘못하였다. 이것은 봉교(奉敎)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

1759년 4월 翰圈의 정치적 의미

- 김낙수일기,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등 교차 검토를 통해 당시의 정황 확인, 분석
- 김낙수일기: 몇몇 인물들의 권점 점수라는 정보도 제공
- 당시 영조가 추진하였던 한천의 폐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행된 한권의 실시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김낙수일기 같은 일기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4. 맺음말

- 김낙수가 관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활동했던 여러 모습과 관직 활동과 대비되는 일상적인 생활의 여러 양상을 정리하여 소개
- 김낙수, 선산김씨 가문: 18세기 중후반 강원도 춘천에 근거지를 두고 한성부에 거처를 마련하였던 관원이자 재지사족이었던 측면에서 전형적인 '춘천 사대부'으로 비정 가능.

→ 18세기 춘천과 중앙의 정치사, 생활사, 사회경제사 연구의 주요 자료, 앞으로 천착 필요